

고은 불교대하소설



116

그런데도 장마를 본분(本分)의 일과 직결시킨 한 판의 커다란 울부짖음이 없음을 어이하리.

물론 현실을 배경으로 삼은 것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부쳐나고 묻자 동산(洞山)의 수초(守初)는 삼세근(麻三斤)이라고 말하였다. 무엇이 부쳐나고 묻고 다니는 녀석이 입은 비단 베풀이 세 근 정도 되었던 것일까.

또한 선객(禪客) 만명을 다 구워먹고도 남을 속세의 방거사(龐居士)가 그의 처자와 함께 그동안 지니고 있던 가재도구를 싣고 동정호를 건너 양양으로 가려다가 풍파의 위기로 그 가재도구를 다 버리고 가까스로 처자만 살려내어 보내고 그 길로 혼자 떠돌다가 약산(藥山)의 유염(唯鏡)에게 가서 17년이나 지냈다.

그런 뒤 그가 떠나는 겨울날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을 가지고 전승하던 선객과 한두 마디 주고 받는데 선객은 "그대의 입은 열리고 있으나 빗어리리다"라는 방거사의 꾸지람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저 눈은 어디서 떨어질까?"라는 거듭된 질문이 그 선객은 떠나는 사람한테 따귀를 두번이나 얻어맞는 것이다.

운문(雲門)의 가을바람(金風) 놀이도 있다. 어느 젊은 선자(禪子)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영고성취를 면할 길이 없는

길 만큼 짙은 채념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간화선의 공안과 화두가 다 헛수작으로 생각되었다. 아니 그의 목조(木造) 그 자체도 공연한 노릇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였는지 그냥 눈감고 비몽사몽간의 얇은 집에 들어가 꾸벅꾸벅 조는 일도 하꾸이풀이 아니었다.

도대체 긴 장마야말로 수행자에게까지도 근본적인 열증을 무덤으로 삼아 거기에 파묻혀 있을 수 밖에 없는 무능의 시간만이 끄찍없는 현실이기도 하였다.

“섬 자체가 다 없어질 터인데 파도소리 위에 집을 짓겠는가 자네도 없어지면 누가...”

그 장마철 한달을 지냈다. 그 뒤로 10여 일만에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질만큼 실로 오랫동안의 푸른 하늘이 장마비를 잔뜩 채우고 있던 허공 한 부분에서 그 푸르름이 쏟아질듯이 보였다.

그리고 비가 꿈인지 생사인지 모르게 개었다. 그 푸른 하늘의 한 부분이 차츰 전체로 넓혀지면서 지루한 장마의 비구름은 그 풍우니를 빼고 만 것이다.

무욕도의 사람들은 입이 열렸으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의 고동 이 속력을 내어 두근대기 시작하였다.

끝내 우녀의 입에서 한 마디 바람속의 말갈기 같은 느낌을 가지고 나왔다.

“참! 참으로 오랫동안 바다가 푸르러 제 빛깔을 되찾았네.” 그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푸른 하늘이 반사되어 거의 흑회색이었던 그동안의 바다가 푸른 바다로 달라진 먼 곳의 수평선에 그의 눈길을 보

내어 잠겨버린 것이 많았다.

대해가 말하였다. “다시 지을까요?” 인답이 대답하였다. “무엇하러 짓는단 말인가.” 대해의 말문이 막혔다. 그 막힌 말문도 말이었던지 인답이 한 마디의 섬뜩한 대답을 덧붙였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도랑 자체, 아니 이 섬 자체가 다 없어져 파도소리뿐인 터인데... 자네가 그 파도소리 위에 집을 지어보겠는가? 아니, 그런 자네도 다 없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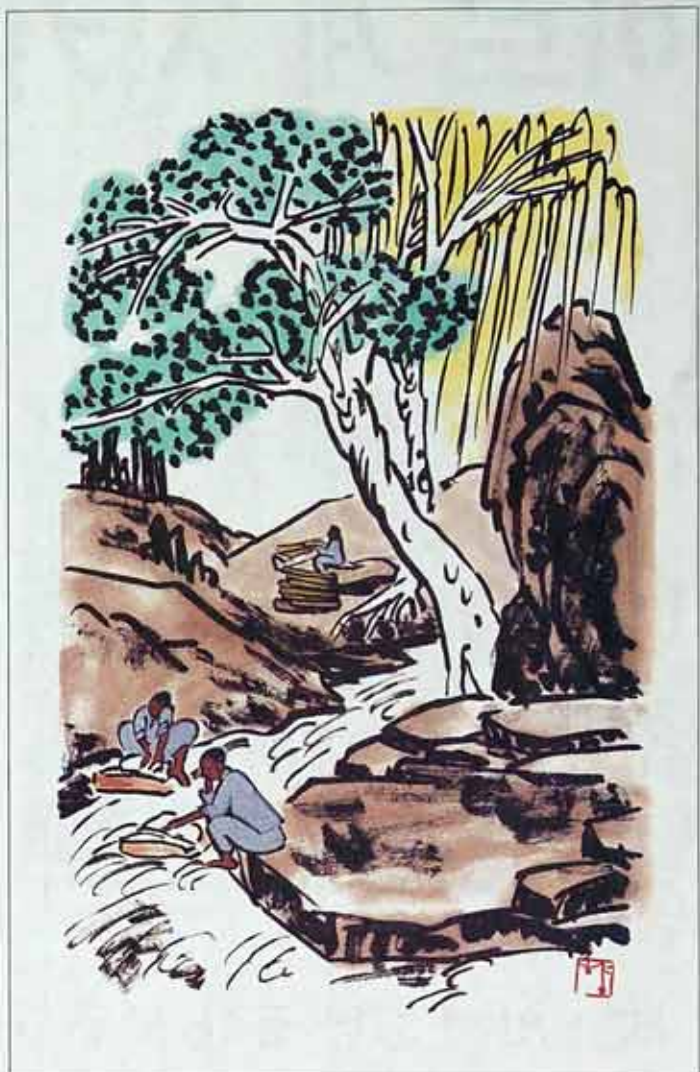


그림 조향숙

그 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장마였다. 그런 장마 속에서도 몸이 회복된 대해나 그런 대해를 듣든하게 여기고 있는 인답이나 얼굴에 터럭이 검게 덮여있었다. 어느덧 인답은 흰 터럭도 솜바닥발을 그만두고 나온 것처럼 화끈화끈하였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우녀 상을 소식들의 삭발한 머리도 수북하게 자라났다.

웬일로 인답의 삭도가 그들의 삭발일을 지켜주지 않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장마에 전가시키고 있고 장마에 의탁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음울한 시간만이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인기척 따위도 없어져서 굳이 내리는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흠뻑 젖은 옷 그대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흠! 흠!”하는 잔 기침소리 따위를 잊어먹은지 오래였다.

그런 지루한 장마 가운데서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 따위의 말은 도무지 떠오를 줄 몰랐다.

그런 장마철의 무욕도에서 인답이 기억하고 있는 1천7백공안 중의 몇가지를 생각해보아도 장마철에 걸맞는 그럴싸한 공안이 없는 성 싶다.

웅이산도 여산도 천태산도 그보다 더 남쪽 한한 땅의 조계산도 그토록 많은 장마를 맞이한 곳이지만 장마를 주축(主軸)으로 삼은 공안의 수작은 없었다.

특히 6조 해능의 고장인 조계산 일대는 이미 아열대의 우계(雨季)에 드는 지역이 아닌가.

데...나무가 사들고 일이 떨어져 세상이 가을과 같이 되는 때는 어떠한가?

그러자 운문은 능청스럽게도 “그래 가을인가. 가을이 되면 좋은 꽃도 다 지고 잎도 다 떨어져 그늘도 없어지며 나무는 앙상해져서 그야말로 무엇 하나 슬금없이 드러나 당당(堂堂)이다. 그래서 가을바람(秋風-金風)이 불지 않는가.”

그것으로 “다 벗어내고 다 드러내서 바람이 분다(體露金風)”의 한 마디로 진면목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것 말고는 능경에서 가인한 바 있는 소리들기인 경청(鏡清)스님이 누구에게 물기를 “문밖에 무슨 소리이고?”에 ‘빛소리(雨聲響)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답 빛소리를 받아들여 그 빛소리에 제 정신을 빼앗기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 ‘남산에도 북산에도 큰 비가 줄줄 내리고 있는데 어쩔 작정인가? 그래’라고 할 법하다.

인답은 가까스로 이 경청이 불속 내놓은 화두에 대해서 빛소리니 큰비 퍼붓는 소리니 하고 대답하는 궁여지책 자체가 싫었다.

이런 장마철에는 그저 입다물고 있는 입에 이끼가 끼어도 좋다고 여겼고 그밖에 양면바닥과 함께 그의 몸에 푸른 녹빛의 곰팡이가 푸짐하게 덮여도 좋다고 여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욕도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 지루한 장마철을 보낸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최근 들어 사람들이 살지 않고 비워둔 뒷채 선방이 장마로 말미암아 무너져 그 기둥이나 서까래나 다 바위 바위에 흠어져 있는 것을 대해가 한쪽으

로 치워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공인의 본축(本軸)이나 송(頌) 따위에 나오는 빈 집(虛堂)인지도 모르지만 이 섬에서는 아이없는 현실의 일이었다.

하키아 그동안 함께 살았던 도반들, 그 사람들이 떠난 뒤이므로 그 뒷채나 산꼭대기의 밭채 따위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지금은 인답 대해의 처소와 우녀 상을 소식들의 아담한 두 처소로 충분한 것이

다. 이미 장마에 무너진 뒤의 목재는 치워 놓았다 하더라도 그 뒷채 법당 겸 선당의 여러가지 가재도구가 빗물에 씻겨가서 바

면 누가 짓겠는가.”

두 사람은 뜨거운 늦여름의 햇볕 아래 요객의 재목들을 오랫동안 골라서 말리는 중이었다. 여자들은 목은 빨래를 하느라고 방 안의 공부 따위는 잊어버리고 땀방울을 맺으며 심명을 내고 있었다.

어찌하고 바다는 물너울같은 경멸한 수면인데 정작 물결은 삼가고 있는 것처럼 잔잔하였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오랜 장마의 습기로 썩어가는 느낌이었던가 이렇듯이 탁 트인 날씨에 그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날아갔다.

“금까마귀(金鳥-해)를 보게 된 것이 오랫동안이군.” 대해가 말하였다.

언젠가 세상을 떠난 상수가 해를 금까마귀라 하고 달을 구슬토끼(玉兔)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가 오늘 혼잣말로 증명 거렸다.

“무너졌지만 법당 대들보를 잘라냅니다” “이제 火木으로나 쓸까 합니다”

그런데 인답은 집 무너진 뒤의 재목들을 하나하나 뜯질로 토크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녀나 대해와 한 마디 의논도 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나 다름없. 저쪽 팔레타의 너럭바위에 있던 우녀가 팔레타의 손을 물에 헹구고서 인답 쪽으로 올라갔다.

“웬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제 화목(火木)으로나 쓸까 합니다.” “... 그래요 법당을 지탱해 준 기둥이고 대들보 아닙니까?”

“대들보든 서까래든 이제 화목노릇이나 하면 딱 들어맞는 것들이요.” “호호... 법당 무너졌어 풀때면 아랫목이 재빨리 따뜻했습니다. 옛날 목불(木佛)을 아궁이에 넣어서 추위를 내뿜은 중이 있었는데... 화상에서는 그 중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인답 우녀는 이번 장마 뒤로는 서로 오

랫동안 말을 나눈 적이 없어서인지 오랫동안의 허를 찌르는 경교어(敬交語)가 아닌 경어(敬語)로 말하게 되었다. 긴 장마가 그들의 말을 바꾸어놓았던 것인가.

우녀는 언젠가 불이한테 들은 단하천연(丹霞天然)의 엉뚱한 일담(逸談)을 떠올렸던 것이다.

중국 해림사는 가난한 두매의 암자였다. 그 절 주지는 게으름뱅이였다. 겨울을 나기 위한 뿔갈도 마련하지 않은채 겨울을 맞았다.

그런 절에 천연이 두타행을 하는 중에 찾아갔다. 몹시 추웠다. 법당의 불상은 나무로 된 불상이었다. 그 불상을 업어서 무덤으로 갔다. 도끼로 찍었다. 불상의 머리도 두 쪽이 되고 몸체도 서너쪽으로 되었다. 불소시게에 부식물을 쳐 불을 붙였다. 이어서 그 불상 조각을 장작으로 뒀다.

주지가 암자 아래 내려갔다 와서 그 해괴망칙한 광경을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처님을 조개에 아궁이에 태우다니... 도대체 네 놈은 뭘 마군이나!”

“허허... 부처님 몸 속에 사리가 얼마나 들었나. 궁궁해서 부처님 다비중(茶毘中)이리요.”

“이름아 나무로 만든 부처님인데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이나.” “그렇다면 나무조각이지 부처는 무슨 놈의 부처란 말이요... 그러나 저러나 흠구려. 들어갑시다.”

천연이 더위치는 구들에 순바닥을 대고 나서 “허허 부처를 태웠더니 이제야 따뜻한 밤바닥일세”라고 깔깔 웃었다.

우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중과 이 섬의 인답을 어느만큼 견주어 보았다. 두 사람 다 실재인물이 아닌 것 같았다.

이제 장마에 무너진 뒤의 목재는 치워 놓았다 하더라도 그 뒷채 법당 겸 선당의 여러가지 가재도구가 빗물에 씻겨가서 바

호신불 백의 관세음보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경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무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 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경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정부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 012-303-9207 ● 부산대리점 051)467-1933

불교인들의 민심,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고 독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원원,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사신과 전화를 하고 상담하십시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고독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함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극락 왕생의 길

佛 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불교식 장례를 대행하여 포교에 기여하고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드는 장례를 저렴하고 정열하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 ▶ 재가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대행
- ▶ 수의 전문 제작, 영결식 기획대행
- ▶ 스님 장례 전문, 스님 수의 제작
- ▶ 여자 신도 및 비구니 스님 장례시 여자 보살님이 염을 해 드립니다.
- ▶ 장지 알선 및 이장 업무
- ▶ 친막, 파출부, 음식알선
- ▶ 무의탁 노인 장례 봉사 전문

전국 불교 장의 연합회

서울 대한 불교연화회 : 02-732-9618-9
광주 불교능인회 : 062-226-5161-4
대구 지장불교상조주 : 053-654-0055
부산 관음손마를 장의부 : 051-818-6511-2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약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